

김경문 감독 웃게 만든 임창민·노성호의 역투

NC는 4월 중순 이후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핵심 선수들의 줄 부상 영향이 컸다. 12일부터 26일까지는 12경기에서 2승10패에 그쳤다. NC 김경문 감독의 근심 또한 깊어만 갔다. 그래도 김 감독은 “좋아지는 선수들이 보인다. 감독은 팀이 저도 희망을 찾아야 한다”며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했다.

김 감독을 가장 흡족하게 한 선수는 임창민(30)이었다. 임창민은 미국 애리조나 1차 스프링캠프 도중 심한 독감에 걸려 조기 귀국했지만, 2군에서 착실히 몸을 만들어 22일 마산 삼성전을 앞두고 1군에 올라왔다. 엔트리에 등록되자마자 출전한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진 데 이어 25~26일 마산 LG전에서도 2이닝 2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제 몫을 다했다. 믿음직한 모습을 보인 덕분에 종아리 근육 파열로 빠진 김진성을 대신해 뒀문지기를 맡게 됐다. 이어 마무리로 선을 보인 28일 문학 SK전에서 1.1이닝 2탈삼진 무실점으로 첫 세이브를 신고했다.

22일 마산 삼성전에 표적 선발로 등판했던 노성호(26)도 합격점을 받았다. 김 감독은 삼성전을 마친 뒤 “팀이 지긴 했지만 (노)성호가 잘 던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노성호를 손민한 대신 5선 발로 기용하며 기회를 줬다.

김 감독은 “팀이 힘들지만 패배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며 “내일이 있는 야구를 해야 한다.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김 감독의 믿음 속에 NC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다. **문학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이대호, 니혼햄전 2루타 2개…타율 0.221

소프트뱅크 이대호(33)가 29일 삿포로돔에서 열린 니혼햄과의 원정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장해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09에서 0.221로 올랐다. 이대호는 2회 첫 타석에서 니혼햄 선발 나가무라 마사루를 상대로 왼쪽 펜스 상단을 맞히는 2루타를 뽑았다. 3회 좌익수 플라이, 5회 우익수 플라이에 이어 8회에도 왼쪽 펜스에 맞는 2루타를 터트렸다. 이후 대주자 가와시마 게이조와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소프트뱅크가 10-5로 이겼다.

오승환 시즌 9S…한신 용병 최다 세이브 달성

한신 오승환이 29일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와의 홈경기 9회 등판해 무실점으로 팀의 3-1 승리를 지키며 시즌 9세이브에 성공했다. 오승환은 지난해 39세이브에 이어 개인통산 48세이브로 한신 역사상 용병 최다 세이브 투수로 올라섰다. 종전 기록은 제프 윌리엄스의 47세이브였다. 이날 오승환은 볼넷 1개를 내줬으나 탈삼진 1개를 곁들여 야쿠르트 중심타선을 제압했다.

■ 박 마우스

●오늘이 9월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두산 김태형 감독. 순위표 맨 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시즌 초라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며)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박석민 또 홈런 “감 잡았어” 삼성 박석민이 29일 대구 LG전 1회말 시즌 5호 2점홈런을 날린 뒤 덕아웃에서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박석민은 2연속경기 홈런을 기록했다.

진화하는 용병 투수들 ‘한국식 레슨의 힘’

LG 양상문 감독이 말하는 ‘알파 용병’ 성장의 비결

한국코치들 미국과 달리 디테일한 기술 전수
조언 받아들이는 용병 오픈마인드도 한몫
LG 소사·벡센 밴 헤켄 한국서 실력 발휘
양 감독 “다혈질 루카스 가끔 소사에게 혼나”

LG 외국인투수 헨리 소사(30)는 한국무대 4년째인 올해 ‘완전체’로 거듭났다. 올 시즌 벌써 6경기에서 40이닝을 던져 3승2패, 방어율 2.93을 기록하고 있다. 2012시즌 중반 KIA의 교체용병으로 한국에 온 뒤 벡센을 거쳐 올해 LG와 계약했는데, 올 시즌 단연 최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로만 유명했지만, 정확한 제구력과 노련한 경기운영능력까지 장착한 덕분이다. LG 양상문(54) 감독은 29일 대구 삼성전에 앞서 “올해 용병투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훌륭하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팀 소사가 가장 좋은 것 같다”며 애착을 드러냈다.

●한국 코치들의 열정, 용병들의 진화 이끈다!

소사처럼 KBO리그에서 뛰면서 기량이 더 좋아지는 용병투수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용병제도 도입 초기에는 한국투수들이 용병들의 ‘신기한’ 변화구와 체계적인 몸 관리법을 곁에서 보고 배우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로, 다소 부족했던 용병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간다. 양 감독은 “한국인 지도자들의 공이 무척 큰 것 같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지난 시즌 방어를 왕인 락 벤틀헨크(현 소프트뱅크)는 처음에는 빠른 공에 비해 제구가 불안한 유형이었지만, 삼성에서 투구폼을 바꾸고 제구력이 좋아지면서 일본으로 ‘역수출’됐다. 수준급 용병이었던 벡센 앤디 밴 헤켄 역시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다듬은 포크볼을 앞세워 20승 투수로 발돋움했다. 2009년 두산에서 뛴 후안 세데뇨는 아예 ‘육성형 용병’이라는 신조어도 탄생시켰다.

양 감독은 “예전에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



소사

밴 헤켄

서 활약할 때는 ‘과연 박찬호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저 정도로 잘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 지도자들은 선수에게 크게 손을 대지 않는 미국 지도자들에 비해 열정이 넘치고 디테일하다”며 “한국 코치들

은 선수를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원포인트 레슨을 비롯해 다양한 지도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선수의 열린 자세가 시너지 효과 만든다!

물론 코치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선수의 자세도 중요하다. 양 감독은 “타자들은 매일 경기에 나가기 때문에 단점을 쉽게 수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투수들은 선발등판을 한 번 하고 나면 4~5일 휴식일이 있으니 대화를 통해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며 “최근 한국에 오는 용병들은 예전처럼 코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더 발전속도가 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양 감독은 시즌 초반 마운드에서 틀쉴날쉴날 모습을 보였던 또 다른 용병 루카스 하웰도 소사처럼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루카스는 성격이 좋고 배울 자세가 돼 있다. 다만 조금 다혈질이라 가끔 소사에게 혼나기도 한다”고 웃으며 “루카스도 지금보다 시즌이 점점 진행될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희망했다. **대구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차우찬 “임창용 선배의 마음이 더 아플 것”

블론S 임창용, 승리 놓친 차우찬에 사과

“임창용 선배가 ‘미안하다’고 하실 때, 오히려 제가 몽클했습니다.”

삼성 차우찬(28·사진)은 올 시즌 2차레나 아쉽게 승리를 놓쳤다. 삼성 소방수 임창용(39)이 기록한 2번의 블론세이브가 하필이면 모두 차우찬 등판 경기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5일 잠실 LG전에서 6.2이닝 2실점(1자책점)으로 잘 던졌지만 임창용이 1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것이 첫 번째. 28일 대구 LG전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를 작성했지만, 다시 임창용이 9회 2점차 리드를 날려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차우찬의 승수는 여전히 ‘2’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차우찬은 29일 LG전에 앞서 고개



이 아프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창용은 경기가 끝난 뒤 차우찬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누구보다 무거운 마음

이었을 터다. 차우찬 역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오히려 더 몽클한 마음이 들었다. 얼마나 미안하실지 나도 잘 알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차우찬은 선발과 불펜을 오갔던 투수다. 소방수가 승리를 날리는 날보다 지켜주는 날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저 팀의 아픈 패배가 더 마음에 걸릴 뿐이다. 그는 “경기에서 지고 나서 우리 팀답지 않게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던 게 가장 안타까웠다”고 다시 한번 팀워크를 강조했다. **대구 | 배영은 기자**

홈&리빙 / 판촉 및 선물용품 / 차·공예 박람회

관람안내

제38회 MBC건축박람회 동시개최!

제8회 동아 홈 & 리빙페어
The 8th Dong-A Home & Living FAIR

전시품목 가전 / 주방용품 / 욕실용품 / 홈인테리어 / 가정용품

제5회 동아 판촉 및 선물용품 박람회
The 5th Dong-A Sourcing & Gift EXPO

전시품목 판촉용품 및 선물용품 / 아이디어 및 디자인 상품 / IT·스마트폰 관련 주변기기 / 사무용품 및 학용품 / 귀금속 및 액세서리

제3회 동아 차·공예 박람회
The 3rd Dong-A Tea & Craft FAIR

전시품목 차(茶) / 도기 및 다기류 / 차(茶) 관련 공예품 / 차문화·생활용품

관람문의



동아전람

T. 02-780-0366 / www.dong-a-fairs.co.kr

기간: 2015. 4. 29(수)~5. 2(토)
장소: KINTEX (일산킨텍스 제1전시장)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토요일도 동일)

